

THE WEALTH GUIDE

2026 Vol.7



Part.2 투자

금융상품을 활용한 월간 현금흐름 창출 방안

금융상품을 활용한 월간 현금흐름 창출 방안

한화생명 이명열 투자전문가

myung.lee@hanwha.com

(작성일 : 2026.6.5)

Summary

- 국내 증시가 단기간 내 급등하고 주식 부자가 늘어나며 경제적 자유를 통해 조기 은퇴를 실현하는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분위기도 확산
- 성공적 은퇴설계를 위해서는 자산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자산으로부터 소득이 꾸준히 창출되어야 하며, 노동소득을 대체하는 자본소득이 관건
- 예금, 채권, 주식, ETF, 보험 등 다양한 자산의 장단점과 세금을 파악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지속적인 현금흐름 구조화 가능

국내 증시 급등 속 개인 투자자 금융자산 증식

- 코스피 증가는 **2026년 5.26일 사상 처음으로 8000 선도 상향 돌파**. 코스피는 올 1월 말 5000 포인트를 상회한지 한달 만에 6000을 넘어섰고, 이후 **2개월 여 만인 5월 초 7000 포인트로, 이후 20일 만에 8000 시대에 도달한 것**. 5월말 기준 **지난 1년간 코스피는 214%, 코스닥은 46% 상승**. 이 기간 삼성전자 464%, SK하이닉스 1041% 급등했으며, 삼성전기(+1800%) · SK스퀘어(+974%) · LG이노텍(904%) 등도 큰 폭 상승
- 개인의 **주식 투자 확대와 주가 상승으로 가계의 금융자산도 크게 증가**. 한국은행에 따르면, **2025년 말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금융자산은 3,760.7조원으로 전년비 656조원(21%)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** 기록.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액이 106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2.5배 넘게 증가한 반면, 저축성 정기 예적금 거래액은 45조원으로 전년도 87조원에서 큰 폭으로 감소

가계 금융자산 추이 (단위: 조원)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
금융자산	4927.3	4971.2	5209.4	5472.6	6201.9	
순금융자산	2675.4	2639.0	2896.1	3105.1	3760.7	
자금 운용	지분증권·투자펀드	119.9	30.5	-6.5	42.2	106.2
	보험·연금 준비금	81.8	61.9	29.5	46.1	87.1
거래	저축성예금	82.2	181.9	102.0	86.7	45.2

* 자료 : 한국은행 2025년 자금순환(잠정),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거래표

*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단체 포함

금융자산의 규모보다는 꾸준한 소득 창출이 중요

- 국내 주가가 단기간 내 급등하고 주식 부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자유를 통해 조기 은퇴를 실현하는 파이어(FIRE,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) 족을 추구하는 분위기도 확산. 성공적인 파이어를 위해서는 **자산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자산으로부터 소득이 꾸준히 창출될 필요**. 즉 노동소득을 대체하는 자본소득이 관건
- 자산은 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하고 즉각적인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. 소득은 지출, 저축, 투자 등을 지탱하는 원천이자 생활비를 충당하는 원동력. 결국 **자산을 축적하고 증식하면서도 자산으로부터 현금흐름이 창출되어야 제대로 된 은퇴설계**



- 예를 들어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월 300만 원을 인출할 경우 28년 후에는 원금이 고갈됨. 반면 연이율 3.6%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원금은 지키면서 매월 300만원(세전) 이자를 확보할 수 있음. 또한 매월 300만원씩 인출하되 **남은 자금을 연간 5% 수익률로 불릴 수 있다면, 10년 후 원리금은 11.34억원이 되고 30년 후 원리금은 17.60억원으로 증가**
- 월 인출금액을 **매년 2% 늘리고 남은 자금은 연간 5% 수익률을 내는 경우, 10년 후에는 매월 358만원을 쓰면서도 원리금이 11.02억원으로 증가하고 30년 후에는 533만원을 빼고도 원리금이 11.73억원으로 증가**

01 정기예금 만기 분산으로 꾸준한 이자소득 유입

- 원금을 지키면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안전한 방법은 정기예금의 만기를 분산시켜 매월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임. 목돈을 한번에 저축하는 게 아니라 **매월 새로운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하면, 1년 후부터는 매월 만기가 차례로 도래하면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음.** 이때 이자는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원금은 또다시 새로운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임.
- 예금 가입 시기를 분산하면 **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목돈 전체를 해지하지 않아도 되어 유동성 확보 가능.** 만일 매월 5000만원씩 연 3%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, 1년 후부터는 달마다 세전 150만원의 이자소득이 나오게 됨. 만기 재예치가 계속된다면 매월 멈추지 않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것. 또한 원리금을 모두 재예치하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음.

예금 만기분산 방법 장단점

구분	주요 내용
장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금을 보존하면서 이자를 발생시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 • 예금 가입 시 이자가 확정돼 변수나 불확실성이 없음 • 매월 만기 도래로 유동성 높고 금리 상승기 유리
단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플레이션 감안 시 화폐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 • 금리 하락 기 불리하며 제로금리 환경에서는 무의미 • 매월 만기 도래와 다수 계좌 관리에 따른 번거로움
세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자소득세 원천 징수 •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• 이자소득 증가 시 건강보험료 증액도 부담

02 다양한 채권 결합으로 현금흐름 구조화

* 이표채: 액면가로 채권을 발행하고 일정기간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

- 이표채*에 투자하면 **표면금리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음.** 국내외 물가 상승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채권 금리는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. **이자 지급시기가 서로 다른 우량 채권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은 원금을 지키면서 매월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적절한 방법임.**

한화생명보험 채권 포트폴리오 예시

※ 투자 권고용이 아닌 정보 제공용 예시

구분	한화생명 신종자본증권 5	한화생명보험4(후)	한화생명보험3(후)
투자금액(액면)	2억원	2억원	2억원
채권 신용등급	AA-	AA	AA
발행일	2024.07.17	2023.08.02	2022.06.17
만기일	2054.07.17	2033.08.02	2032.06.17
조기상환일	2029.07.17	2028.08.02	2027.06.17
표면금리	4.8%	6.0%	5.3%
이자지급월	1, 4, 7, 10월	2, 5, 8, 11월	3, 6, 9, 12월
세전 분기 이자	2,400,000원	3,000,000원	2,650,000원

채권 포트폴리오 구성 장단점

구분	주요 내용
장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해진 표면금리에 따라 고정적 이자소득(fixed income) 확보 • 만기 보유 시 투자 수익률 확정으로 예측 가능한 자산관리 • 금리 하락 시 비과세 시사차익 가능
단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발행한 기업의 재무상태 악화 시 신용 리스크 발생 • 만기 이전에 처분 시 채권 가격에 따라 시세차손 야기 • 증시 활황 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투자 유인 약화
세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은 과세 •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비과세 • 은행환산수익률로 은행금리 및 채권간 세후 수익 비교 가능

03

고배당 주식으로 정기적인 배당소득 확보

- 오랜 기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**배당주에 투자하면 분기 혹은 연 단위로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고, 약세장에서도 배당소득이라는 완충장치 마련** 가능. 더욱이 배당금 재투자 시 배당이 배당을 가져오는 복리구조가 만들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보유 주식 수와 총배당금이 증대되므로, **단순 시세차익 전략보다 장기 누적수익이 커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.**
- **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, 월간 현금흐름에 가까운 배당소득 플로우도 구성 가능.**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KB금융의 배당지급월은 4월, 5월, 8월, 11월이며, 현대차와 POSCO는 4월, 6월, 9월, 12월임. 한편 고배당 상장법인(배당성장 40% 이상 등)에 적용되는 **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8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** 해당

배당주 투자 장단점

구분	주요 내용
장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정기적인 현금흐름 발생 • 배당소득이 확보돼 약세장에서 하락 방어력 강화 • 저금리 시기 이자 대체 소득이자 추가 상승기 시세차익 부가
단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당소득이 줄어들거나 배당이 중단될 위험 • 추가 하락 기 시세차손 확대 리스크 • 고금리 시기에는 배당수익률의 상대적인 매력 약화
세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당소득에 세금 부과...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• 분리과세 고배당주: 한국거래소 기업공시(kind.krx.co.kr) 확인 • 시세차익은 비과세(소액주주 한함)

04

월지급 ETF로 다양한 자산의 분배금 확보

- 월지급식 ETF는 **주식, 채권, 리츠,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 매월 분배금을 바로 지급.**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음. 주식형은 배당주 중심 ETF가 일반적이고, **채권형은 변동성 낮은 우량채권과 분배금 높은 하이일드 ETF가 대표적. 커버드콜 ETF는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분배금 재원으로 삼는 투자전략** 적용

월지급 ETF 특징과 월분배율

※ 월분배율은 가변적

구분	상품	특징	월분배율(%)
고배당	고배당, 배당성장	배당수익률 상위, 배당성장 지수 추종 등	0.1~0.4
리츠형	부동산, 인프라	부동산 임대료, 인프라 시설료 등이 재원	0.3~0.8
채권형	우량채, 하이일드	국채, 금융채, 회사채, 하이일드 이자 수령	0.2~0.6
커버드콜	고배당, 하이테크	매월-매주 콜옵션 매도, 시세차익도 추구	0.8~1.4

커버드콜 전략 장단점

구분	주요 내용
장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투자와 동시에 매월 일정 수준 분배금 수취 • 다양한 기초자산 유형과 분산 투자의 이점 • 하락장이나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현금흐름 발생
단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높은 분배금은 자산가치 상승을 제한한다는 단점 • 기초자산의 시황이 불안정할 경우 분배금 감소 가능성 • 일정한 분배금 지급은 약세장에서 원금 손실 야기 가능
세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분배금 배당소득세 부과(국내 주식 시세차익·옵션프리미엄 비과세) • 매매차익은 원천에 따라 과세(국내 주식 비과세, 그 외 배당소득세) •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절세계좌 이용 시 세제혜택

05

미국 월지급 ETF로 달러 월급 통장 마련

- 미국 증시에 상장된 **월지급식 ETF에 투자해 달러 소득을 확보하고 기축통화로의 자산 분산 가능**. 국내에 비해 다양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으로 선택의 폭 확대. 더욱이 **분배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로 마무리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적음**. 해외 직접 투자에 따른 환율 변동성과 공격적 투자 시 원금손실 리스크 유의

미국 월지급식 ETF 예시

※ 투자 권고용이 아닌 정보 제공용, 월 분배율은 가변적

구분	특징	월분배율(%)
JEPI	S&P 500 대형주 투자로 지수 수익률 추구 + 커버드콜 전략	0.7 내외
JEPQ	나스닥 100 구성 성장주 중심 투자 + 커버드콜 전략	0.8~0.9
QYLD	나스닥 100 추종, 커버드콜 100% 전략으로 분배금 극대화	0.9~1.0
PFF	미국 우선주에 투자해 분배금 지급,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	0.5 내외

미국 월지급식 ETF 장단점

구분	주요 내용
장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달러 월급 통장을 만드는 효과로 기축통화로 자산 분산 가능 • 국내 ETF에 비해 다양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적용 • 미국에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.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 감소
단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분배금과 평가금액이 모두 달러 기준이므로 환율 변동성에 노출 • 공격적인 ETF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 • 커버드콜이나 액티브 ETF의 경우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음
세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분배금은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 • 시세차익에는 양도세 22% 부과 • 옵션 프리미엄은 국내와 달리 과세

0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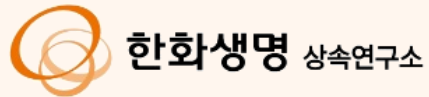
연금저축·보험을 활용한 연금소득 확보

-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노후에 대비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. **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시점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수령 요건 충족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됨**. 반면 **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**이 있는 세제비적격 장기 저축성 보험. 연금 개시는 만 55세 이후. 한편 즉시 연금은 대체로 45세 이상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 이후 바로 연금 수령 가능

연금보험 장단점

구분	주요 내용
장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생 정기 현금흐름을 확보해 장수 리스크 대비 •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 비과세(세제적격은 세액공제와 저율과세) • 연금 개시 시점 원금 보증, 최저보증이율 등의 장치
단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입 초기 높은 사업비 부담 • 중도 해지 시 저조한 환급률, 세제적격은 연금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• 안전자산 비중 확대 시 낮은 수익률
세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납입한도, 납입방식, 유지기간 등 요건 충족 시 보험차익 비과세 • 요건 미충족 시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 과세 • 원금부터 인출, 이후 보험차익 인출로 간주

- 예금, 채권, 주식, ETF, 보험 등 **다양한 자산을 편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꾸준한 현금흐름을 창출**함으로써 노동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이자·자본소득을 확보할 수 있음. 최근 은퇴설계의 적절한 척도는 “얼마를 가졌는가 보다, 얼마가 나오는지” 임. 즉 **축적된 자산의 총액 보다는 그 자산이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소득 중요**



필수 안내사항

-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-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(주)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한화생명보험(주)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(주)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(주)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